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 경 님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척도제작을 위해 먼저 부산시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13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기통제상황에 대하여 자유기술형 응답형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기초조사가 실시되었다. 기초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유사항목 분류작업을 통하여 13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문항에 대해 5인의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10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7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정리된 109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85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문항양호도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총점과의 상관 및 Cramer's V 계수를 구하였다.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사려숙고성,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통제, 교사관련통제의 6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43문항이 선정되었다. 한편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통제소재와의 상관관계를 구한결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 전체 .91 각 하위요인별 .72 ~ .85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척도는 도구로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제작되지 않은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을 위한 일차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재검토, 개선 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핵심어 : 자기통제 • 자기통제측정 • 구성요인

대부분의 어린 아동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충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위해 부모나 양육자의 주의나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동은 성숙과 함께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자기통제가 발달되어 학령기가 되면 부모와 양육자의 지시나 감독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통제된 아동은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사려적으로 행동하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은 억

제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나아가 학교와 사회에서 바람직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송명자, 1995; Durlack & Jason, 1984; Mulvihill, 1990; Rohrbeck, Azar & Wagner, 1991). 그러나 모든 아동이 다 쉽게 자기통제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아동은 어려움이 겹쳐져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대인과의 문제에서도 충동적이고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가서는 반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성을 보인다(Rose, 1991). 이러한 성향은 아동기 이후나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Mischel, Shoda & Peake, 1990).

자기통제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이 자기통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Rose, 1991). 즉, 자아이론이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자기통제를 자아통제의 영역으로 보아 부모에 의해 내재화된(internalized)비교적 개인의 자율성이 없는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초기의 학습이론적 관점에서도 단지 환경의 자극에 의해 유기체의 행동이 통제되는 것으로 보아 인지적, 능동적 측면을 무시하였다. 그런데 사회학습이론과 러시아 심리학자들(Luria, 1961; Vygotsky, 1962)은 자기통제를 단순한 성격특성이나 인지를 무시한 환경에 의한 반응적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자기통제 과정에서의 매개인으로 인지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통제에 있어 인지과정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 20

여년 동안 인지행동적 접근으로 자기통제의 기본적 개념이 되고 있다. 인지행동적 접근의 자기통제에 대한 개념은 Kendall과 Wilcox(1979)에 의해 잘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자기통제는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때 주요 인지적 요인으로 심사숙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인지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행동은 이행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은 억제하는 것을 자기통제행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Kanfer와 Goldstein(1991)는 자기통제란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이라고 보고 미래의 더 큰 결과를 위해 유혹적인 대상을 뿌리칠 수 있으며 혐오적인 상황에 대한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통제에는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일시적 충동 억제, 만족지연,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Kopp(1982)에 의하면 자기통제는 외부의 지시나 감독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한 Mischel(1983)은 자기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으로 만족지연을 들고 더 매력적인 좋은 결과나 만족을 얻기 위해 즉시 얻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자기통제라 보았다(Schaffer, 1993). 이렇듯 자기통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나타나지 않으나 관련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통제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

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사려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인지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행동은 수행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 자기통제의 발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행동제지(inhibition of action)와 유혹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불쾌한 상황에 대한 인내(tolerance of noxious situation)를 자기통제행동의 중심으로 다루어왔다(송명자, 1995 ; Harter, 1984 ; Wang, 1994). 그런데 자기통제행동의 용어는 각기 달리 연구되었지만 발달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자기통제행동은 유아기 동안 서서히 발달하여 5세경이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능력은 아동 중기 까지 계속 발달된다고 보고 있다. Messer (1976)는 이러한 발달경향의 중요한 이유로써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사려성증가의 인지적 요인으로 들고 사려성은 5세전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유혹저항, 만족지연 및 충동제지의 발달에는 지연행동이나 유혹저항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적절한 방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방략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문제상황의 특수한 조건에서 문제해결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려성과 병행해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 발달은 사려성의 증가를 전제로 하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Salkind와 Nelson(1980)은 아동은 5세경이 되면 사려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세경

까지 거의 안정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적절한 사회화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아동은 유아기와 아동초기동안 사려성이 점차적으로 발달하여 아동중기쯤이면 적절한 자기통제능력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Berk, 1997). 자기통제의 인지적 측면을 주장하는 관련학자들에 따라 사려성과 충동통제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Cameron, 1977; Douglas & Peters, 1979; Goldman & Everett, 1985)들에 의하면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아동은 사려숙고적인 사고를 요하거나 계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요하는 과제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며 학업성취에서도(Feldman & Wentzel, 1994)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더우기 오늘날에는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의 사려적 능력의 결핍이 정서적 적응이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사려적 문제해결기술이 결핍된 아동들은 대인간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잘못 알고(Dodge, 1985) 대인문제 해결에 있어 충분한 대안생성의 실패(Spivack & Shure, 1982) 등 대인관계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일수록 행동문제는 더 많이 발견된다고 밝혀지고(김선희와 김경연, 1999)있다. 이렇듯 자기통제가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자기통제에 관한 많은 이론적인 모형(Kopp, 1982; Harter, 1984)과 자기통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기통제기술이나 훈련프로그램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에 대한 훈련 효과 및 분석연구(Eisen & Silverman, 1991; Kendall & Wilcox, 1980)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통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의 개인적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자기통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Kendall과 Wilcox(1979)의 자기통제평정척도(SCRS : Self-Control Rating Scale)가 먼저 제작되었다. Kendall과 Wilcox는 자기통제행동에 관련되는 문헌을 종합하여 자기통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33문항의 7점 리커트로 구성된 SCRS를 개발하였다. Kendall과 Wilcox는 이척도의 목적을 자기통제의 다양한 수준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두었다. 이 척도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정하는 것으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 내적일치도, 만족지연행동 및 문제행동척도 등 다른 척도와 관련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S는 자기통제의 하위구성요인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교사가 각 아동에게 33문항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길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Humphrey, 1982; Work, Hightower, Fantuzzo, & Rohrbeck, 1987) 이후 Humphrey(1982)는 Kendall과 Wilcox의 도구를 기초로 33문항을 축소하여 15문항 5점 리커트로 구성된 교사가 아동을 측정하는 TSCRS(Teacher Self-Control Rating Scale)와 9문항 2점 리커트로 구성된 아동이 지각한 CPSCS

(Children's Perceived Self-Control Scale)을 제작하였다. Humphrey에 의하면 TSCRS는 인지적/개인적 요인과 대인적/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인지적/개인적 요인은 인지적 요인과 과제를 수행하는 지속력 및 인내에 관련되는 10문항이며 대인적/행동적요인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내용에 관련되는 5문항이다. 이 척도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PSCS는 4문항의 대인적 요인과 3문항 개인적 요인 및 2문항의 자기평가요인으로 구성되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각 하위요인별로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SCRS와 T-SCRS는 최근까지도 자기통제훈련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정되고 있다(Rohrbeck, Azar & Wagner, 1991; Fitzpatrick-Doyle, 1990). 이후 Rohrbeck등(1991)은 자기통제측정에서 교사나 부모가 평정할 경우 측정의 제한점을 들고 아동의 직접적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이들은 Kendall의 교사용 SCRS의 문항내용을 아동용으로 바꾸어 33문항으로 재구성된 CSCRS(Child Self-Control Rating Scale)을 제시하였다. CSCRS는 Humphrey의 척도가 yes-no형식의 2점 리커트로 내적일관성이 낮은 점을 보완하여 4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Rohrbeck의 CSCRS는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과 통제소재 척도와의 공인타당도를 밝히고 있으나 구성요인은 검증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아동의 자기통제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다.

첫째, 자기통제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endall과 Wilcox의 SCRS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된 척도에 한정되어 연구되고 있었다. SCRS는 자기통제훈련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에는 의미있는 도구로서 인정받고 있으나 교사나 부모가 아동을 관찰하고 측정한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즉, 교사나 부모가 아동을 평정하는 것은 교실이나 가정에 국한된 상황의 아동을 관찰하여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을 평정하기에는 제한적이거나 특히, 부모는 아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아동이 모든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평정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기통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Beitchman, & Corradini, 1988). 그러나 아동의 자기보고식 자기통제척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통제의 발달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만족지연(김민순, 1988; 정영숙, 1995; 허수경과 이경남, 1996; Michel & Michel, 1983), 유혹저항(곽혜경과 조복희, 1999; Parke, 1974) 등 자기통제의 하위요인 각각에 제한되어 연구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아동의 자기통제가 어떠한 능력 혹은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송명자, 1995). 그러나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자기통제는 적어도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기통제가 다양한 행동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볼 때 자기통제는 몇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통제의 여러 하위요인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자기통제척도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자기통제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Kendall과 Wilcox의 교사용 SCRS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척도의 문항내용이나 문항진술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연구들도 자기통제의 훈련효과를 밝히는데(이경남, 1997; 최인호, 1994) 그치고 있다. 더우기 자기통제척도를 사용하여 자기통제의 발달과 관련변인을 밝힌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자기통제가 개인의 통제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능력임을 고려할 때 (Kanfer, & Goldstein, 1991) 개인이 생활하고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통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기통제상황에 대한 진술문을 토대로 한 척도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통제척도의 개발은 우리나라 아동의 자기통제의 발달과 관련변인간 관계에 관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넷째, 최근까지의 자기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통제의 발달이 시작되는 영아나 학령전 아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 이후 아동기가 되면 적절한 자기통제기술을 획득하며 이 시기의 자기통제수준이 지적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령기 아

동의 자기통제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령기 아동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자기통제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관련 문헌을 토대로 내려진 정의에 근거하여 아동으로부터 자기통제상황에 관한 진술문을 수집하여 이에 따른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동의 자기통제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2) 아동의 자기통제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3) 아동의 자기통제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공립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419명과 6학년 435명 모두 854명이다. 본 조사는 1999년 7월 5일 - 7월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 아동의 표집절차는 먼저 부산시의 4개 구를 선정하고 각 구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아동이 다닌다고 인정되는 1개교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의 각 학년별 3학급씩 전체 24학급, 모두 890명의 아동이 표집되었다. 이 중 부실기재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 854명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학년별 성별 분포와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남자아동은 430명(50.3%), 여자아동은 424명(49.6%)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300명

표 1 . 연구대상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빈 도 (%)	인원(결측인원)
학 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419(49.0) 435(50.9)	854
성 별	남 자 여 자	430(50.3) 424(49.6)	854
아버지 연 령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300(35.1) 513(60.0) 8(0.09) 15(1.7)	854(18)
아버지 학 력	중 졸 고 졸 초 대 졸 대 졸	115(13.4) 326(38.1) 26(3.0) 291(34.0)	854(96)
직 업	전문관리직 사 무 직 생산서비스직 무 직	144(16.8) 210(24.5) 417(48.8) 31(3.6)	854(52)

(35.1%), 40대가 513명(60%)로서 대부분의 아버지는 30대와 40대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26명(38.1%), 초대졸 이상이 317명(37%)였으며 직업은 생산서비스직 417명(48.8%), 사무직 210명(24.5%), 전문관리직 144명(16.8%)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연령 대상 선정이유는 자기통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은 초등학교 초기쯤 적절한 자기통제능력을 획득하여 아동중기에는 안정된 자기통제를 보이며(Vasta & Haith, 1993)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시기도 아동중기 이후(Harter, 1988)로 보기때문에 아동중기와 후기를 대표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측정의 최적 연령으로 판단하였다.

2. 자기통제척도의 구성

1) 기초조사

척도제작을 위한 문항수집을 위해 먼저 기초조사가 실시되었다. 기초조사는 연구자가 1999년 4월 12 - 4월 14일까지 부산시의 공립초등학교인 K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학년과 6학년의 각 2학급씩 모두 139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시간에 조사되었다.

자기통제 척도의 문항수집을 위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해야하는 상황(일들)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는대로 많이 적어주시고 가능한한 상세히 설명해주세요."라는 지시문과 함께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기통제상황에 대한 내용을 자

유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위하여 자기통제의 예를 들어 "자기통제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꼼꼼히 생각하여 행동하며 당장 하고싶은 일도 억제하고 감정도 자제하며 하기 싫지만 꼭 해야할 일은 인내하여 스스로 끝까지 해내는" 행동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아동이 생각하는 자기통제상황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적도록 하였다. 한 아동당 소요된 시간은 30분 - 40분이었으며 아동이 질문할 경우 연구자가 설명해 주었다. 회수된 139부 중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진지함이 결여된다고 판단된 것을 제외한 135부를 문항 수집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2) 문항의 구성

수집된 135부에서 나타난 진술문은 다음 단계를 거쳐 예비형 자기통제척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 : 유사의미군 분류

135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1285개의 응답이 나왔다. 이 중 추상적인 내용이나 빈도가 낮게 나온 내용, 특정개인에게 한정되는 내용을 제외한 1250개의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1250개의 응답중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된 항목은 분류하여 135개의 유사의미군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과정에서 척도 문항의 선정을 위한 보편적인 반응을 추출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연구 대상에 의해 진술된 동일한 내용은 반복 회수를 기록하였다.

2단계 : 유사의미군 중에서

각 1개의 진술문 추출

추출된 135개의 유사 의미군 각각에서

응답의 빈도가 가장 많고 보편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1개의 진술문을 채택하여 1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만들었다.

3단계 : 내용타당도 검증 및 문항 재구성

13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예비형 자기통제 척도에 대해 연구자와 5인의 전문가(초등학교 교사 3인, 아동심리 전공 교수 2인)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인에게 문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상의하였다. 그 결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중복된다고 지적된 문항은 제외하고 포괄적인 문항은 분리하여 109문항으로 다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예비조사

아동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답하기 곤란한 문항이 없는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7년 6월 24 - 6월 25일까지 109문항으로 구성된 예비형 자기통제 척도를 부산시의 공립학교인 J초등학교의 4학년 2학급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응하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09문항 모두를 본 조사의 척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문항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여 재구성하고 정리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척도의 문항 양호도 검증을 위한 문항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전체간 상관계수, χ^2 검증,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간에 상관계수를 구하고 보다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자 요인별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전체 문항과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한편, 자기통제척도점수와 관련변수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결과의 원인을 내재적으로 지각할 때 자기통제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Harter, 1984; Rohrbeck et al., 1991)에 근거하여 자기통제와 통제소재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한 통제소재척도는 Nowicke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통제소재척도를 기초로 하여 Connell(1985)의 아동의 통제지각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를 참조하여 내재적 통제소재 및 외재적 통제소재를 묻는 각 10개 문항씩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인의 전문가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내외통제소재척도는 4점 리커트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외재적통제소재 성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는 .73로 나타났다. 1999년 11월 22 - 11월 25일 까지 부산시내 J초등학교의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가 수행되었으며 최종 209명이 분석되었다.

결 과

1. 문항양호도

109개의 문항중 자기통제척도의 문항으로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 문항양호도 분석을 하였다. 먼저, 학원과 형제에 관련된 문항, 각 문항의 평균을 검토하여 반응이 치우친 문항(문항평균 4.0이 넘는 문항)과 문항 전체간 상관계수가 .30미만인 문항 모두 36문항을 제외시켰다. 그리하여 선정된 73개 문항을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상하위 27% 두 집단사이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χ^2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73개 문항은 $P<.001$ 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를 보였다. 더불어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ramer's V계수는 모든 문항에서 .33에서 .67사이를 나타내었다.

문항양호도 분석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에 의하면, 변별도 지수의 일반적 수용수준이 Cramer's V계수 .25임을 고려할 때 척도 문항 구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2. 타당도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한 절차로 앞서 문항 변별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73문항에 대해 두차례의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1차요인분석은 73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수 5개에서 8개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할때 6개 요인으로 지정했을 때 가장 적합한 문항 구성을 이루었다. 요인분석결과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의미가 모호하거나 요인부하치 .40이하인 문항과 문항양호도 검사를 통해 선정된 73개 문항중 요인분석과 회귀분석결과 최종선택된 43문항에 대한 문항변별도 분석결과만을 기재하였음.

요인부하치 .40이상이면서 동시에 다른 요인에 부하된 문항 모두 26문항은 제외시켰다. 1차요인분석결과 선정된 47문항에 대하여 scree test,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한후 주성분분석 및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키는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전체 변량의 44.5%를 설명하는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구조는 표3과 같다.

첫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2.5%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6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히 생각해서 행동하고 통제상황에서 책략을 사용하는 등 자기통제의 인지적인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려숙고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두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9.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모두 9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반드시 해야할 일은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인내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과제인내'라고 명명하였다. 세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모두 7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과업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표 2. 문항 양호도 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점수의 평균	문항 점수의 표준편차	문항 척도간 상관계수	χ^2	Cramers' V
1	4.00	1.26	.43***	117.39***	.50
2	3.81	1.26	.38***	91.84***	.44
3	3.17	1.31	.45***	135.40***	.54
4	3.02	1.39	.51***	163.61***	.59
5	3.74	1.27	.44***	109.83***	.49
6	3.96	1.28	.42***	121.89***	.51
7	3.36	1.30	.45***	126.94***	.52
8	3.76	1.24	.48***	136.94***	.54
14	3.21	1.27	.38***	94.33***	.45
15	3.14	1.24	.40***	113.15***	.49
16	3.40	1.20	.39***	94.68***	.45
25	3.43	1.17	.48***	159.96***	.59
27	3.29	1.18	.48***	153.07***	.57
28	3.92	1.11	.48***	158.15***	.58
29	3.47	1.26	.49***	158.41***	.58
33	3.82	1.12	.56***	209.68***	.67
43	3.69	1.29	.37***	95.96***	.45
47	3.30	1.40	.54***	198.65***	.65
48	3.19	1.23	.52***	172.08***	.61
51	3.48	1.24	.49***	178.21***	.62
52	3.39	1.29	.54***	183.31***	.63
54	3.30	1.45	.45***	127.31***	.52
56	4.00	1.15	.50***	149.23***	.57
59	3.47	1.23	.59***	208.68***	.67
70	3.45	1.16	.46***	141.73***	.55
78	3.36	1.22	.38***	108.54***	.48
79	3.14	1.20	.34***	86.79***	.43
80	3.61	1.20	.31***	91.12***	.44
81	3.34	1.21	.32***	79.55***	.41
82	3.13	1.21	.32***	84.98***	.43
83	3.39	1.20	.42***	132.82***	.53
85	3.12	1.27	.41***	111.54***	.49
87	3.60	1.21	.41***	113.79***	.49
88	3.62	1.22	.49***	160.75***	.59
90	3.14	1.33	.39***	106.93***	.48
91	3.73	1.17	.49***	152.60***	.57
92	3.71	1.25	.39***	108.89***	.48
97	3.44	1.09	.49***	151.48***	.57
99	3.41	1.12	.49***	140.90***	.55
102	3.61	1.20	.46***	126.86***	.52
103	3.30	1.10	.50***	156.31***	.58
106	3.48	1.20	.47***	132.11***	.53
107	3.48	1.24	.47***	147.81***	.56

***p<.001

문항양호도 검사를 통해 선정된 73개 문항중 요인분석과 회귀분석결과 최종선택된 43문항에 대한 문항 변별로 분석결과만을 기재하였음.

표 3. 아동의 자기통제척도의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h^2
91	<u>.70</u>	-.02	.17	.11	.06	.00	.54
104	<u>.65</u>	.20	.04	.09	-.02	.04	.48
92	<u>.63</u>	-.02	.08	.04	-.03	.05	.41
103	<u>.63</u>	.19	.02	.16	.01	.05	.46
88	<u>.62</u>	.19	.04	.08	.18	-.04	.46
89	<u>.61</u>	.14	.09	.09	.19	-.06	.45
106	<u>.58</u>	.17	.05	.09	-.07	.16	.41
97	<u>.58</u>	-.01	.15	.15	.27	.04	.45
107	<u>.57</u>	.18	.06	.14	-.08	.14	.41
98	<u>.55</u>	-.00	.20	.22	.15	.03	.42
99	<u>.55</u>	.10	.10	.14	.03	.19	.38
87	<u>.54</u>	.05	.07	.11	-.09	.20	.36
85	<u>.52</u>	.11	.03	.10	-.01	.15	.32
86	<u>.52</u>	.10	.03	.16	-.09	.20	.35
90	<u>.51</u>	.15	-.01	.20	.14	-.14	.37
102	<u>.49</u>	.19	.15	.15	-.04	-.02	.33
59	.12	<u>.66</u>	.19	.07	.15	.19	.55
52	.12	<u>.66</u>	.19	.00	.14	.08	.51
48	.24	<u>.60</u>	.12	-.01	.10	.16	.46
51	.10	<u>.58</u>	.14	.05	.14	.07	.40
47	.28	<u>.55</u>	.20	-.10	.18	.10	.48
54	.14	<u>.55</u>	.02	.01	.03	.30	.41
43	.06	<u>.52</u>	.18	.09	.02	-.12	.34
33	.13	<u>.50</u>	.25	.09	.14	.24	.41
3	.14	<u>.43</u>	.33	.04	-.00	.15	.34
8	.13	.15	<u>.66</u>	.08	.09	.12	.51
6	.13	.14	<u>.62</u>	-.03	.09	.09	.44
7	.11	.26	<u>.61</u>	.03	.14	-.07	.48
5	.12	.12	<u>.58</u>	-.04	.14	.20	.42
2	.03	.22	<u>.56</u>	.06	.03	.02	.37
1	.08	.13	<u>.46</u>	-.00	.12	.36	.38
4	.18	.38	<u>.45</u>	.05	.04	.18	.41
81	.22	-.03	.00	<u>.70</u>	.00	.09	.55
82	.18	.01	.02	<u>.68</u>	-.00	.12	.51
80	.25	-.08	.09	<u>.63</u>	-.01	-.01	.48
79	.16	.13	-.02	<u>.62</u>	.07	-.00	.44
78	.23	.15	.02	<u>.58</u>	.02	-.03	.42
83	.38	.00	.05	<u>.50</u>	.15	.01	.43
14	.03	.16	.10	.05	<u>.78</u>	.07	.66
15	.04	.13	.12	.06	<u>.76</u>	.16	.65
16	.01	.17	.15	.02	<u>.73</u>	.14	.60
25	.00	.28	.30	.07	<u>.45</u>	.24	.43
27	.13	.27	.11	.02	.28	<u>.60</u>	.54
28	.14	.14	.25	.01	.21	<u>.57</u>	.47
29	.15	.24	.20	.00	.19	<u>.57</u>	.48
70	.36	.08	.00	.23	-.00	<u>.42</u>	.37
56	.08	.31	.33	.08	.01	<u>.42</u>	.40
고유치	10.57	4.27	1.91	1.54	1.38	1.23	
설명변량	22.5	9.1	4.1	3.3	2.9	2.6	
총설명변량	22.5	31.6	35.6	38.9	41.9	44.5	

가져다주는 대상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유혹저항'이라고 명명하였다. 네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6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 슬픔, 기쁨, 분노 등 정서의 표출을 제지하는 내용이므로 '정서통제'라고 명명하였다. 다섯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모두 4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친구 간에 다투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위한 통제상황에 관한 내용이므로 '친구관련 통제'라고 명명하였다. 여섯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모두 5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학교에서나 수업시간에 교사가 보지 않더라도 지시나 규칙을 따르는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교사관련 통제'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표4에서 요인간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표4에 의하면 요인간 상관계수 값은 모두 유의하여 .14~.62로 상호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제인내와 유혹저항요인의 상관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사려숙고성 요인과 정서통제요인도 .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다 적은 수의 좋은 문항들을 추출하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요인별로 포함되는 문항들의 개별 점수를 합하여 구성한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개별문항을 추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설명력의 증가분이 1% 이상인 문항만 선정하기로 하였다.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에 의하면 요인1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각 요인별 개별문항들 모두 설명력 증가분이 1% 이상으로 전체분산의 100%를 설명하고 있다. 하위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 문항을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설명력이 1% 미만인 문항은 요인1의 86, 98, 89, 104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명력이 낮은 이들 4문항을 제외한 최종 43문항이 아동의 자기통제 척도구성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표 4. 자기통제 하위요인간 상호상관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1 사려숙고성						
요인2 과제 인내	.44***					
요인3 유혹저항	.37***	.62***				
요인4 정서통제	.54***	.19***	.16***			
요인5 친구관련 통제	.19***	.45***	.44***	.14***		
요인6 교사관련 통제	.43***	.58***	.54***	.25***	.44***	

***p<.001

표 5. 문항추가에 따른 설명력(R^2)증가분

요 인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2	요 인	문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2
요 인 1	91	.48	요 인 3	8	.47
	103	.67		4	.68
	106	.75		1	.79
	85	.81		2	.87
	97	.85		6	.92
	88	.88		7	.96
	99	.91		5	1.00
	92	.93	요 인 4	81	.51
	90	.94		80	.71
	107	.96		78	.83
	87	.97		79	.90
	102	.98		83	.96
	*86	.98		82	1.00
요 인 2	*98	.99	요 인 5	14	.65
	*89	.99		16	.84
	*104	1.00		25	.94
				15	1.00
	59	.53	요 인 6	27	.55
	47	.69		56	.73
	52	.78		29	.86
	48	.85		70	.94
	3	.90		28	1.00
	54	.92	* 표시된 문항은 설명력 증가분이 1% 미만이고 척도 구성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문항으로 판단되어 제외된 문항임		
	43	.96			
	51	.98			
	33	1.00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통제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통제소재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6에 의하면 자기통제의 전체 및 각 하위요인과 통제소재의 상관관계는 -.27 - -.56로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

다. 즉, 자기통제가 높은 아동일수록 내재적인 통제소재를 지닌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인 통제소재의 아동일수록 자기통제가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론적 맥락에서 관련된 외적변수와 예측된 관계를 밝힘으로서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에 관한 하나의

표 6. 자기통제 하위요인 및 전체와 통제소재의 상관관계

	사려 숙고성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 통제	교사관련 통제	전 체
통제소재	-.42***	-.54***	-.41***	-.28***	-.27***	-.41***	-.56***

***p<.001

증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의 자기통제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별 및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7과 같이 전체 척도 $\alpha=.91$ 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α 계수는 .72 ~.85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7. 자기통제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수와 Cronbach's α 계수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계수
사려숙고성	12	.85
과제 인내	9	.82
유혹저항	7	.76
정서통제	6	.76
친구관련 통제	4	.77
교사관련 통제	5	.72
전 체	43	.91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기통제상황에 관한 진술문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우리나라 아동에 적합한 자기통제척도를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통제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알

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반응분포를 분석하고 전체 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Cramer's V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 .41-.67로 나타나 문항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기통제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양호도가 확보된 73문항을 대상으로 두차례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하였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치 .40 이하의 문항, 요인부하치 .40 이상이면서 다른 요인에 동시에 적재된 문항 모두 26문항을 제외한 47문항이 전체변량의 44.5%를 설명하였다. 이 6개 요인을 각각 사려숙고성,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통제 및 교사관련통제로 명명하였다. 이 중 사려숙고성 요인은 22.5%를 설명하여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는 사려숙고적인 인지요인으로 구성되며 사려적이고 신중한 아동이 자기통제도 높다는 Kendall과 Wilcox(1980)의 주장에 의해 지지된다. 즉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상황을 검토하고 꼼꼼히 생각하여 행동하는 사려숙고적인 능력은 자기통제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제인내가 본 척도의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혐오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과제를 달성하려는 인내가 자기통제에서 중요하다고 본 Kanfer와 Goldstein(1991)의 주장과도 일치된다. 바람직한 과업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대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혹저항은 본 연구에서도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최근까지도 자기통

제행동의 주요영역으로 연구되고 있는 유혹저항행동은 본 연구에서도 자기통제의 주요한 하위구성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정서통제요인이 자기통제의 주요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는 감정과 정서의 강도를 통제하는 정서억제능력이 중요한 자기통제능력의 요인임을 밝힌 Maccoby(1980)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감정을 적절히 표출할 수 있는 아동이 자기통제능력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교에서의 통제와 친구관련 통제가 분리되어 구성됨을 볼 수 있다. 교사, 친구는 대인간의 통제상황이라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와 친구관련 통제가 각기 다른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이 교사와 친구관련 통제상황에서 다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통제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14 - .62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각 요인간의 상호상관은 자기통제척도의 요인들이 같은 변인을 측정했음을 밝혀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척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각 요인의 상관이 너무 높으면 구인이 하나이므로 본척도의 각 하위요인은 중복적이지 않으며 어느정도 독립적임을 알수있다. 그런데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혹저항요인과 과제인내요인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혹에 대한 저항이 높은 아동일수록 과제에 대한 인내도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려숙고성요인과 정서통제요인의 상관도 .54로 비교적 높았으며 이로써 상황을 검토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아동이 상황에

따라 정서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다 적은수의 타당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내문항이 제외된 43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통제 척도와 통제소재 점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척도의 하위요인과 통제소재는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통제가 높은 아동일수록 내재적 통제성향을 지닌것으로 해석된다.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통제소재를 가진 아동일수록 자기통제가 높다는 선행연구(Harter, 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공인타당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통제척도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도 문항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72 - .85로 양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통제척도는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제작되지 않은 아동의 자기통제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일차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부산시 아동에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아동이 함께 포함되어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도구의 적합성이 검

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척도에서 나타난 문항수가 작은 요인과 내적일치도가 .75가 되지 않은 요인의 문항을 좀 더 보완, 구성하여 새로운 아동을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재검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지 못함으로서 개발된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검사 재검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함이 요청된다.

추후로 이러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재검토, 개선되어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곽혜경·조복희 (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권 1호, 165-176.
- 김선희·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이경남 (1997),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과 과제 수행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0권 1호, 123-143.
- 정영숙 (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호 (1994), 자기통제훈련에 의한 정신 지체아동의 과다행동 수정효과, 전주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수경·이경남 (1996), 인지양식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 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7권 2호.
- Beitchman, J. U., & Corradini, H.,(1988). Self-report measure for use with children: A review and com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477-490.
- Berk, L. E. (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 Cameron, R. (1977). *Source of problem-solving inefficiency in relation to conceptual tempo*. Paper represented at the bie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Connell, J. 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36, 91-109.
- Dodge, K. A. (1985). Attributional bias in aggressive children.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4 pp73-110), Academic press.
- Douglas, V. Z., & Peter, K. G. (1979). Toward a cleaner definition of the attentional deficit of hyperactive children. In G. A. Hall & M. Lewis(Eds), *Att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skills*. (pp 173-247), N. Y. Plenum.

- Durlak, J. A & Jason, L. A. (1984). Preventive programs for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 C. Robert & L. Peter(Esd), *Prevention of Problems in childhood ; Psychological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103-132), N.Y. Willey.
- Eisen, A. R., & Silverman, W. K.(1991). Treatment of an adolescent with bousel movement phobia using self-control therap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 Experimental Psychology, Vol 22(1)*, 45-51.
- Feldman, S. S., Wantzel, K. R.(1990). Relations among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813- 819.
- Fitzpatrick-Doyle, T.,(1990). An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of a measure of self-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51(2-B)*, 1013.
- Goldman, A. P., & Everett, F. (1985). Delay of gratification and time concept in reflective and impulsive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1*. 547-552.
- Harter, S. (1984).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 Mussen, (Eds)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75-385.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W. J: Erlbaum
- Humphrey, L.L. (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pective on children's self-control ;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Kanfer, F. H. & Goldstein, A. P. (1991). *Helping people change, A textbook of methods.*(5th), pergamon press.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6)*, 1020-1029.
- Kendall, P. C. & Wilcox, L. E. (1980). A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impulsivity : concrete versus conceptual training in non-self-controlled problem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8*, 80-91.
- Kopp, C. B. (1982). The adolesc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 199-214.
- Luria, A. (1961).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s*. N. Y. Liveright.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

- 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Y, Harcourt Brace Jovanovice
- Meser, S. B. (1976). Reflection-impulsivity ; *A view Psychological Bulletin*, 83, 1026-1052.
- Mischel, W., Shoda, Y., & Peake, P.K.(1990).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 - 696.
- Mischel, W. (198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 252-283.
- Mischel, H. N. & Michel, W.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Mulvihill, B. A., (1990) ; *A developmental view of some adolescents of a sense of control*. unpublished manuscript, Texas women's university.
- Nowick, S., & Strickland, B. R.(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Parke, R. D. (1974). Rules, and resistance to deviation in children: Explorations in punishment, discipline and self-control. In A. Pick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8.)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ohrbeck, C. A. Azar, S.T. & Wagner, P. E. (1991) ; Child Self-Control Rating Scale ; Validation of a Child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2), 179-183.
- Rose, A. (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s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Salkind, N. J., & Nelson, C. F.(1980). A note on the developmental nature of reflection-impuls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37 - 238.21.
- Shaffer, D.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hood and adolescence(3rd)*. Pacific grove, California ; Brooks & Cole
- Spivack, G. & Shure, M.B. (1980).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s a mediator of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 29-44.
- Vasta, R., Haith, M.M., Miller, S.A. (1993). *Child Psychology, The Modern Science*, John Willey & sons, INC.
- Vygotsky, L. (1962). *Thought and Language*, N.Y.Wiley.
- Wang, A. (1994). *Motivation, stress, self-control ability and self-control*.

- Work, W. C. Hightower, A. D.,
Fantuzzo, & Rohrbeck, C.
A. (1987).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Teacher Self-Control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5, No. 1,
115-126.

〈부록〉 자기통제적도 문항 내용

요인1. 사려숙고성

91.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는 꼼꼼히 생각을 하여 결정한다.
103. 하기 싫은 일을 해야할 때는 하고나서의 이로운 점들을 생각하고 해낸다.
106. 시험공부 하기 싫을 때는 시험을 잘 쳤을 때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85.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을지 생각을 먼저 한다.
97. 하고싶은 일이라도 친구에게 피해가 되면 하지 않는다.
88.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생각해서 산다.
99. 친구들과 토론할 때 다른 친구의 말에 주의해서 귀 기울인다.
92. 발표를 하기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꼼꼼히 생각해 본다.
90. 친구를 사귀기 전에 꼼꼼히 생각해 본다.
107. 해야할 일이 많을 때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해 나간다.
87.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한다.
102. 지금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을 모았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고 참는다.

요인2. 과제인내

59. 꼭 해야할 일이라도 지루하고 짜증이 나면 그 일을 끝까지 못한다.
47. 용돈을 받으면 계획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다.

52.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기 싫으면 그 일을 미룬다.
48. 시험을 잘 치기위해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
3.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잠이 오면 끝까지 공부하지 못한다.
54. 꼭 읽어야 할 책이 두껍고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지 않는다.
43.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51.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만 곧 포기한다.
33.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면 그만둔다.

요인3. 유혹저항

8. 지금 해야할 일이 있어도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 나간다.
4. 지금 숙제해야 하는데 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TV를 먼저본다.
1. 오락실에 가고 싶을 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몰래 간다.
2. 보고싶은 TV프로를 못보게 하실때 부모님 몰래 본다.
6. 지금 숙제해야 하는데 컴퓨터 게임이 하고 싶으면 게임을 먼저한다.
7. 지금 숙제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면 하고 싶은 것을 먼저한다.
5. 지금 집에 일찍 가야 하는데 친구가 놀자고 하면 친구와 논다.

요인4. 정서통제

- 80. 나는 기쁜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슬픈일이 있으면 기쁨을 참는다.
- 78. 슬픈일이 있어도 주위를 생각해서 슬픔을 참는다.
- 82. 시험을 잘 쳤을 때 친구를 생각해서 마음으로만 기뻐한다.
- 81. 나혼자만 칭찬받았을 때 친구를 생각해서 마음으로만 기뻐한다.
- 79. 나에게만 기쁜일이 있을 때 친구를 생각해서 기쁨을 참는다.
- 83. 나에게 기분나쁜 일이 있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참는다.

요인5. 친구관련통제

- 14. 친구가 시비걸때 먼저 참기보다는 같이 시비걸고 싸우게 된다.
- 16. 친구가 귀찮게 할 때 먼저 참기보다는 화를 내며 싸우게 된다.

- 25. 친구들에게 양보해야 하더라도 내가 하고싶은 것은 양보하지 않는다.
- 15. 친구가 놀릴때 먼저 참기보다는 덩달아 놀리며 싸우게 된다.

요인6. 교사관련통제

- 27.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보시지 않으면 장난을 친다.
- 56. 배가 매우 고플때는 참지 못하여 선생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 29. 복도에서 선생님이 보시지 않으면 뛰어다닌다.
- 70. 수업시간이 지루하더라도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
- 28. 선생님이 보시지 않으면 청소나 당번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Self-Control Rating Scale

Lee, Kyung-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for rating children's self-control.

In order to produce a scale, in free question and answer type, asked one hundred and thirty nine(139) 4th and 6th grade school children in Busan about the situation of children's self-control. Based on the data, classified suspected items into one hundred thirty five (135) items and through 5 professional's content validity, reorganized the items into one hundred and nine(109). In order to review the property of these 109 items, proceeded pilot study. And executed main study subject to eight hundred and fifty for (854) 4th and 6th grade school children.

For the item discrimination analysis, item means, standard deviations, item-total correlation, χ^2 and Cramer's V calculated. Construct validity was tested by factor analysis, after the result, six factors, such as, "deliberation", "patience in doing tasks", "resistance to temptation", "control of emotion", "control for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teacher" and "control for relationship with peer", were produced. The Interrelation among the factors was .14-.62. Multi-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reduce the length of the scale have drawn 43 items. The scale correlated significantly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produced by cronbach's α coefficient. After the result, total coefficient is $\alpha=.91$ and α coefficient of each factor is .72-.85. This study is meaningful since the children's self-control rating scale development has not studied in Korea yet and for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review continuous research was required and discussed.

key words : self-control • rating self-control • structure factor